

김주희 첫번째 이야기

바람 불어 주는 날



표지 파랑새 II 34×25×18cm, 점토, 1220°C 산화소성

김주희 첫번째 이야기

바람 불어 좋은 날

2014년 10월 15일(수) - 10월 26일(일)

초대 2014년 10월 17일 (금) 오후 3시-6시

 GALLERY
이 언 주 갤 러 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170-5

T. 051) 723-4883

휴관안내 : 매주 월요일 휴관입니다.

본 전시는 2014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의 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 시대적 감성을 넣어 작가 - 서른 중반의 미혼 여성의 관점에서 느낄 수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나 욕망과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여성의 인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는 흙의 따스한 질감과 유린한 색감과 어우러지며 부드러운 곡선과 과장, 단순화를 통해 해학적 요소를 자아낸다.

작가가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표현 했다고 해서 감상자들 역시 꼭 작품에서 욕망과 욕구만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작가의 의도와는 정 반대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내 작업에 나타나는 여성의 몸을 보고 어떤 이는 뚱뚱하고 우스꽝스럽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육감적이고 섹시하다고도 하며 다른 이는 어머니처럼 투근하다고도 한다. 이 또한 감상자의 몫이리라...

나의 감성이 들어있는 작업이나 자화상이기도 하지만 이는 스펀지롤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여성일수도 있고 스타벅스에 앉아서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는 여성일수도 있다. 이런 여성의 평범한 욕망과 욕구에 대한 감성과 이미지들을 작가의 경험적 사유를 통해 표현하여 들리고 싶지 않은 여성의 사소한 욕망과 욕구를 표면으로 드러내어 서로 웃으며 공감하며 가벼운 위안을 주고자 한다.

늘 그렇듯 작업은 경험을 통한 일상으로 부터 시작되며 그렇게 창조된 100명의 여인들은 또 다른 생각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바람불어주는날...

100명의 여인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상을 하던 그것은 오롯이 관람자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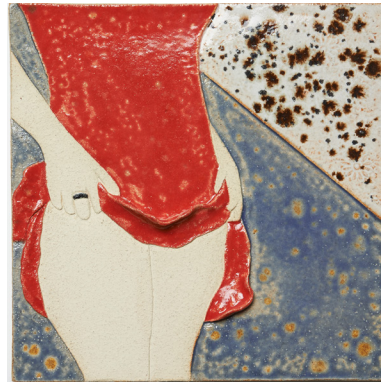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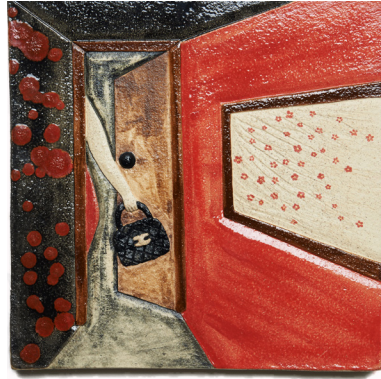








좌. 라떼처럼 40×35×80cm, 점토, 1220°C 산화소성
우. 수줍은 고백 35×40×50cm, 점토, 1220°C 산화소성









코르셋 34×25×60cm, 점토, 1220°C 산화소성





바나나 향기 45×50×50cm, 점토, 1220°C 산화소성



간절함 바람 35×40×50cm, 점토, 1220°C 산화소성





여유로운 한때 45×45×28cm 점토, 1220°C 산화소성

김주희 | Kim, Ju Hee

학력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졸업
동부산대학교 생활도예과 졸업
동아대학교 대학원 공예전공 석사 졸업

현재

송하도예, 송하갤러리 운영
동부산대학교 외래교수
동아대학교 외래교수

연구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인평로 11번 나길 13

연락처. 010-8539-5175

E-mail. juhee807@naver.com

All works of art © 2014 Kim, Ju Hee

Catalogue © 2014 LEEYEONJU GALLERY

Text © 2014 Kim, Ju Hee

Design & Production KCA | Korea Contents Archive 051)742.2558

This exhibition was organized by LEEYEONJU GALLERY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Limited edition of 200 copies, Printed and bound in Korea



김주희 첫번째 이야기

바람 불어 주는 날

